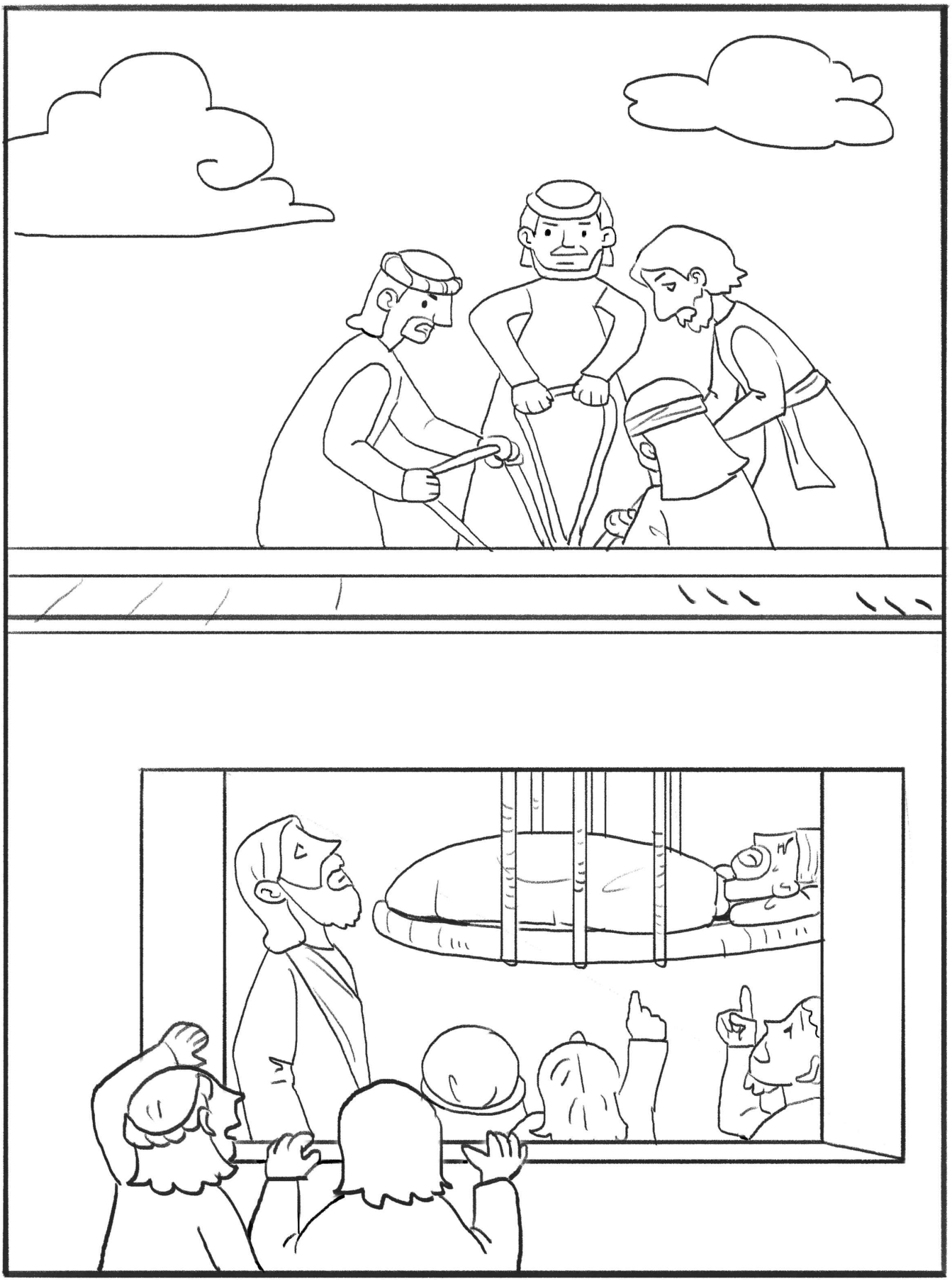
아픈 친구를 고쳐주셨어요

누가복음 5장 17절~26절

가버나움에 중풍병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가 있었어요.
“나는 몸이 아파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손도 발도 움직이지 못해요. 맛있는 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중풍 병자에게 네 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들은 불쌍한 중풍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어요.
그리고 구멍 속으로 천천히 중풍 병자를 내렸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예수님께서는 중풍 병자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 친구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이제 중풍 병자는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친구들아 고마워.”
예수님은 중풍 병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아픈 친구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우리교회 기쁨의 나라

예쁘게 색칠해 보세요.